

CFC 제50차 정기 자문회의 참석

- 주동주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센터)

1. 출장자: 국제산업협력센터 주동주 연구위원
 2. 출장기간: 2012. 7. 1 - 7. 6 (6박 7일)
 3. 출장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4. 출장목적: 정부간 국제기구인 상품공동기금(Common Fund for Commodities: CFC)의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위원으로서 제50차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참가
 5. CFC 조직 개요 및 출장 업무 내용
 - CFC는 개발도상국들의 자원개발과 1차 산업 육성, 국제자원 가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 6월 UNCTAD 총회의 결의로 창설된 정부간 국제기구임 (실제 설립은 1989년).
 - 2010년 1월 현재 106개 국가와 유럽공동체(EC), 아프리카연맹(AU) 등 10개 다자기구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음
- ※홈페이지 <http://www.common-fund.org>

- 동기구의 조직은 총회(Governing Council),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그리고 사무국(Secretariat)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무국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음.
 - 총회는 전체 회원국 및 회원 기구 대표로 구성되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1년에 1회 정기 회의를 가짐.
 - 집행위원회(이사회)는 총회가 선출한 28인의 회원국 및 회원 기구 대표로 구성되며 CFC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에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함.
 - 자문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CFC의 사업에 관해 집행위원회를 조언함.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에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함.
 - 사무총장(Managing Director)은 임기 2년으로 현재는 탄자니아 출신의 외교관(전 무역부장관, UN대사)인 Ali Mchumo임. 현재 연임으로 2012년 8월에 임기 만료 예정
- 본인의 이번 출장 업무는 자문위원회의 2012년 하반기 정기회의(50차 회의) 참석이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이 요청해온 원조 사업을 검토하고 CFC의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일이 주업무였음.

6. 제50차 자문위원회 회의 경과

- 7월 2일 Ali Mchumo 사무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CFC 본 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 50차 정기회의가 개최됨.
- Ali Mchumo 사무총장은 최근 선진국의 경제 위기에 따라 국제기구들이 겪고 있는 재원조달 문제를 언급하고, 이에 대응하는 CFC 내부의 개혁조치에 관해 언급함.
- 현재 외부에 의뢰한 개혁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CFC의 기구 성격 자체는 유지하나 활동비용 감축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금년 8월 31일로 자신의 2번째 임기가 끝나게 됨을 언급하고 감사를 전함.

- CFC 개혁 작업에 따라 당분간 후임 사무총장 선출을 연기하고, 상근 인력 중 최상위 선임자인 Mr. Pavindar Singh이 사무총장 대행을 맡게 되었음.
- 이번 50차 자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기 2년의 자문위원단은 임기를 종료하며, 본인은 연임으로 최종 종료함.
- 이어서 Abdelatif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여 본격적으로 50차 회의 안건 심의에 들어감
- 이번 회의에서는 사무국측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개도국 원조 요청 사업 중 다음 1건에 대해서만 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결정함.

우선 순위	Project Code	Project Title
1	CFC/FIGG/47	Proposal for an Accompanying Loan Guarantee Scheme Fo the Tanzania Country Component of the Project "Small scale cassava processing and vertical integration of the cassava subsector in Southern and Eastern Asia

- 이와 함께 지원 규모가 작은 다음 6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승인 사업 (Fast Track Projects)으로 사무총장이 조속히 승인하여 시행토록 건의함.
- International Workshop on “Achieving Sugar Self Sufficiency: Challenges, Problems & Issues” (CFC/ISO/34FT)
- Addressing Impact of Commodity Derivative Trading: A Public-Private Initiative on Market Volatility (CFC/CFC/32/FT/FA)
- Beyond 2015: The Role of Commodities in Development (CFC/CFC/33FT/FA)
- Bridging the Gap between 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s and SMEs

in Emerging Markets (CFC/CFC/34/FT/FA)

- Enabling Producer Organizations to Invest their way out of Poverty (CFC/CFC/35/FT/FA)
- An International Workshop on “Enhancing Food Security in Egypt and Sudan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Grains Sector” (CFC/FIGG/48/FT)

- 회의 과정에서는 13인의 전문가가 특정 상품별로 각각 1차 Commenter, 2차 Commenter를 맡아 회의를 주도하고 이에 대해 전체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후 합의제로 최종 결정을 내림. 본인은 Metals, Fish에 대해 1차 Commenter, Timber에 대해 2차 Commenter를 맡음.

7. 출장 성과 및 제언

- 최근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금이 감소함에 따라 CFC는 내부적으로 기구와 행사 축소 등 개혁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UNCTAD와 UNIDO가 CFC의 기금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련의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현 Ali Mchumo 사무총장의 임기가 8월 중 종료되나 후임 사무총장 선출이 연기됨.
- CFC는 개도국들의 일차산업 개발을 돕기 위한 국제기금으로서 출범 당시에는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일차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지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출범 후 23년이 경과한 현재 기금 공여국인 선진국들의 무관심으로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음.
- CFC 내부적으로도 특정 사업의 지원 요청시 해당 상품의 국제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기구(International Commodity Body: ICB)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증받도록 한 현장 규정으로 인해 실제 지원 결정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본 자문위원은 ICB 검증 절차의 생략과 공개 입찰 등 사업 심의 절차의 개혁을 제안한 바 있으나, 현장 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향후 신임 사무총장 선출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명확한 상황이나, 기구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적절한 시기에 후임 선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한국도 이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본인은 임기 2년의 자문위원을 연임함으로써 이번 자문회의 참석을 끝으로 전체 임기를 종료하였음. 그 동안 공정한 기준으로 개도국들의 빈곤 퇴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심의에 성의껏 노력하였으며, 산업연구원 및 한국과 동기구, 이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의 주요 인사들과의 관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함.
 - * 2010년 8월 Ali Mchumo 사무총장 방한시 기획재정부 및 유관기관 방문 주선
 - * 2011년 12월 산업연구원 주관 “아프리카 산업개발을 위한 한국의 협력” 주제 국제세미나에 CFC측 인사 참여